

‘갯바위’ 기우는데 삭도 추진?

정부 규제완화로 지자체 관광개발·환경파괴 우려

환경부(장관 이만기)가 환경규제 완화를 밝히는데 따라 각 지자체와 추진단체들이 케이블카 건설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구립 19일 자연공원의 주요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1월 15일 2급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는 국립공원인 자연보존지구의 케이블카 노선 길이를 5km까지 연장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갯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를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및 명칭지역이 지자체간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멍들고 있다.

#전국국립공원 케이블카 몰살

1980년 내장산을 마지막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케이블카의 환경파괴와 효율성저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등 개발위주 정책이 가동되면서 환경부도 변했다.

이에 따라 팔공산 갯바위지구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응재)는 1월 7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대구시(시장 김범일)에 ‘현상변경허가’ 신청했다. 법적 장애물이 없어진 추진위는 “사업 허가를 얻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연말쯤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 주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민자사업단이 추진하는 ‘갯바위 케이블카’는 ‘갯바위’ 왼쪽 200m 지점(해발 840m)-대구동구 시설까지 1269m 구간, 총사업비 124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갯바위 케이블카 선착장에는 양·한식 및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서게 된다.

갯바위 외에도 현재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신청한 지역은 총 11개 지역으로 △제주도 한라산 △울산 신불산 △밀양 얼음골 △강원도 설악산 △목포 유달산 △영양 월출산 △지리산 구례 지역 △지리산 산정 지

역 △지리산 남면 지역 △과천 관악산이다.

이중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대표적인 사찰환경 침해사례다. 표충사와 통도사(말사 성남사)는 사찰내부가 보이고, 수평환경이 침해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도)에 산하 ‘로프웨이 및 국립공원 제도개선 관련 전문위원회’를 마련해 중단TF팀 구성과 현장답사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개발 둘러싼 지자체간 알력



케이블카 설치로 훼손위기에 처한 갯바위. 갯바위는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신령의 대상이다.

‘갯바위’의 경우 대구시는 민자사업단의 적극 추진에 관광수입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팔공산 주차장에서 도보 30분 거리에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와 대구시는 세계유산선승권대회가 개최되는 2011년을 ‘대구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갯바위 케이블카 관광을 비롯해 △‘핫&쿨’ 등 각종 축제 개최 △국제관광선원 △한방웰빙 체험관 등 내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1월 17일 경산-갯바위 연결노선 신설, 대구-경산 무료환승제도 전면시행 등 기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갯바위축제’ 명칭 사용과 시청전화번호 803번(팔공산) 등으로 대구시와 묘한 알력관계인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행정상 경산 문화재인 ‘갯바위’가 대구시 관광객

원으로 개발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관광문화재를 담당하는 경산시 새마을문화과는 “갯바위는 경산시-선분사-갯바위로 가는 길에 평탄해 경산시로 매년 350만명이 찾는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경산쪽 관광객이 줄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등산로 정비사업 등 지속적 개발을 통해 관광객이 줄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에 훼손되는 정보상징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신경



이러한 반발에 갯바위 개발을 추진하던 김범일 대구시장은 1월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갯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여론수렴 의지를 표명했다.

전과 과열된 개발에 정작 ‘갯바위’는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갯바위’는 2007년 안정성 논란에 쌓인에서 도보 30분 거리에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와 대구시는 세계유산선승권대회가 개최되는 2011년을 ‘대구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갯바위 케이블카 관광을 비롯해 △‘핫&쿨’ 등 각종 축제 개최 △국제관광선원 △한방웰빙 체험관 등 내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1월 17일 경산-갯바위 연결노선 신설, 대구-경산 무료환승제도 전면시행 등 기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강암으로 된 갯바위 왼쪽 암덩어리 부분은 가로 1m, 세로 1cm 균열이 있으며, 이를 지탱하는 받침석에도 10cm 정도의 틈새가 벌어져 여러 돌맹이들이 메워진 상태다.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소중한 불교문화재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갯바위’를 관리하는 선분사 주지 항적 스님은 “전국의 불자가 찾는 성소(聖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의 술과 음식 등으로 신령분위

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며 신령환경 훼손도 우려했다.

항적 스님은 “갯바위는 일반 관광지 아니다. 신심이 없으면 오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관광개발에는 경계수익성도 낮다”고 말했다. 선분사는 이미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여, 갯바위 참배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5만 2000명 서명부 1차로 국회와 대구시 등에 전달한바 있고, ‘조계종 중앙총회 회원 일동’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설치 지지 운동을 강력하게 나가기를 천명했다.

#환경단체들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정상 부근과 등산로 파괴는 피할 수 없다”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공론화하고 여론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사무국장은 “주차장에서 2-30분 걸려 올라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다. 갯바위 200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문화재 파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단의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환경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 갯바위 개발을 추진하던 김범일 대구시장은 1월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갯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여론수렴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갯바위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현장 활동가들은 무리하고 급작스런 개발 사업추진을 정부와 지자체가 임기 내 과시적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꼽는다. 대통령과 시장은 임기마다 바뀌지만, 우리의 강줄기와 명산, 그리고 소중한 문화재는 한번 가면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의 개발과 보존은 비전과 엄밀한 조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월은 스님 해임은 무자비한 폭력”

역경후원회, 동대 역경원장 파행인사 비판 성명

“역경불사에 일생을 매진한 월은 스님을 해임한 것은 무례요,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월은 스님을 도와 역경원 불사에 힘을 보탤던 동국역경원후원회 회원들이 ‘법의 당간을 무너뜨린 동국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1월 15일 발표했다.

회원들은 “월은 스님의 원력에 감복해 평생을 스님과 함께 역경불사

에 동참하리라 발원한 지 만13년을 지내왔다”며 “월은 스님의 역경원장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은 “월은 스님은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상좌스님들의 걱정을 털기 위해 창에 검은 커튼을 치며 밥을 지새웠을 만큼 역경에 헌신했다”며 “영답 스님이 종단의 권력을 쥐기 위해 월은 스님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비판했다.

역경원 후원회원들은 △파행적 인사를 주도한 영답 스님(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의 공직 사퇴와 공개 참회 △인사를 무례하게 집행한 동국대 오영교 총장과 최순열 학사부 총장의 참회 △월은 스님의 명예회복과 역경원 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군중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대법회 봉행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육군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 선정사 영진 스님, 보은 김중봉 법사(연무사 주지), 금강회장 최재권 중령, 불교어머니회 등 군포교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동학원 여학생 댄스팀이 위문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교지도자넷 총무원장 총택선거 캠페인

“총택준법 준수와 후보자 검증, 총택 대결로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자”

을 10월경 예정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총택선거를 지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은 1월 12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무원장 선거연중 캠페인’ 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불교지도자넷 운영진은 취지문을 통해 “발서부터 총무원장 선거에서 편법과 공권선거가 난무할 조짐이 보인다”며 “금년 선거가 종단의 자정과 혁신, 화합을 외면하지 말고 여법한 불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종단발전안 제안,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제안이 담긴 캠페인 자료집을 전국 주요사찰 등 3000여 곳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불교지도자넷 운영진 법은 스님은 “사단이 벌어진 후에는 이미 늦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해결의 처방전을 갖는 지도자집단에 있다”면서 “올해는 불교가 국민에게 화합과 희망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책으로 알리는 한국의美”

영문 반가사유상 도록 출간

한국불교 미술품의 정수인 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 제83호)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서적이 출간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은 영문 도록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Eternal Images of Sakyamuni: Two Gilt-Bronze Korean National Treasures)>을 1월 12일 발간했다. 영문 도록은 한석홍 작가의 100여 컷 반가사유상 사진 자료를 게재해 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두 불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과 이정희 교수(미국 포틀랜드주립대)의 반가사유상 관련 논문을 게재해 해외 일반인들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02)2046-8563 조동섭 기자

교계 대학, 등록금 동결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위덕대(총장 배도순)는 최근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등록금 동결조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마미로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www.templestay.com

니를 가슴 속 희망을 듣다

찾아야 하는 여행

2009년의 새로운 희망이 가슴을 비춥니다. 더 따스하고, 더 기쁜 한 해일 것입니다. 올해엔 마음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템플스테이 TEMPLESTAY

문의전화 02·2011·1970~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